

대한제국이 멸망한 지 100년이 되었다. 남한북한이 분단된 지 62년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국망과 분단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병증은 현재 편찬중인 <친일인명사전>과 <친북인명사전>을 둘러싼 갈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들 편찬위는 모두들 '꺾어서 풀리는 질박' [折伏]만을 강조할 뿐 '꺾어안 들어는 설수' [攝受]가 보이지 않는다.

병자호란 이후 우리에게 명나라와의 의리에 집중한 친명파와 청나라와의 실리에 치중한 친청파가 있었다. 지난 세기 초반에 나라가 망하자 실리에 몰입한 친일파가 생겨났다. 중반에 분단이 되자 명분에 치중한 친북파가 생겨났다. 친일파 일부는 민족의 자존보다 개인의 명달을 우선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항력이었다고 변호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일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독립을 준비한 사람도 있다. 해서 친일과 부일 및 항일과 국일의 이분법으로만 접근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해방 이후 과도한 이념 논쟁으로 민족의 뿌리인 만주 지역을 잃어버렸다. 동간도와 북간도와 서간도는 살아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무대였다. 하지만 좌우의 이념 과잉은 급기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우리는 일제 청산과 친북 청산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세기 이상을 갈등해 왔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



불자 세상보기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중도 지혜의 활로는 없는가

국이 되었고 북조선은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반도와 만주대륙에서 펼쳐내었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를 지워버릴 것인가. 고조선과 부여 및 고구려와 대발해의 강역을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제외시킬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고려 건국 이전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지 않을 것인가. 대한민국 건국의 물리적 이념적 배경이 되었던 만주 지역 동북 삼성의 독립운동 무대를 지워버릴 것인가.

2005년 8월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간행한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맞서 2010년 3월 국가정화추진위에서 <친북인명사전> 발간을 위한 명단을 발표했다. 편찬위는 '친북·반국가 행

위 대상자 5천명 가운데 현재 활동 중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를 대상으로 1차 수록 예정자 100명을 공개했다"며 "북한 당국의 노선인 '주체사상', '선군노선', '연방제 통일' 등을 지지·선전한 행위(친북행위와,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한 경우(반국가행위) 등을 선정기준으로 했다"고 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는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 국권침탈과 강압적 식민통치, 반인륜적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인물의 행적을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전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체의 아픈 상처를 확인하고 드러내어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간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름바 '사전'이란 "단어를 모아서 그 형태, 발음, 기능, 어원, 구조 및 관용어법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한 순서로 벌여놓고 뜻을 풀어 새긴 책"이다. 그렇다면 '인명사전'은 "인명을 모아서 그 생몰년대, 출신성분, 활동이력, 이념성향, 정치행태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정한 순서로 벌여놓고 뜻을 풀어 새긴 책"이 될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은 그 인명들의 친일 활동 이력을 주로 기술할 것이며, <친북인명사전>은 그 인명들의 친북 활동 이력을 주로 서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사전'이라는 '권위' 혹은 '지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재검열할 것이며 거기에 따라 자신의 정치이념을 표현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전은 초중고학생들의 '이념교과서'가 될 것이 분명해진다.

나아가 우리 민족은 또다시 이념과잉의 터널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불교는 꺾어서 풀리는 '질박'과 꺾어안 들어는 '설수'를 치우침 없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새가 두 날개로 날고, 수레가 두 바퀴로 가는 것처럼 '친일'과 '친북'을 뛰어넘어 그 모두 살리는 '중도 지혜의 활로'는 없는 것일까.

그 활로는 비생사적인 소모전을 버리고 전 세계를 향한 새로운 '역할모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닐까.

스님께서 쓰신 다수의 책들은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한다.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으로 살고 있는 나 또한 많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옷·가방·자동차 등 세상에는 갖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정작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 나를 아껴주는 친구들,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지구의 공기,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물...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스님은 <무소유>에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각박해지고 지칠 때면 나는 스님의 책을 펼쳐든다. 그곳에서 생긴 만나 빛지도 못한 법정 스님에게 위로를 얻는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첫사랑의 기억은 희미하게 잊혀져간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무소유> 중

고 감동을 받아 선물을 하게 됐다"고 선생님의 친필이 적혀있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무소유'를 읽고 내용 전체를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천천히 한 장씩 읽어내려 가면서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나는 그해 아버지 생신에 <무소유>를 사서 선물로 드렸다. 그 때부터 나도 지인들의 책을 선물할 때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선택했다.

성인이 돼 다시 펼쳐든 무소유에서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더 깊고 풍요롭게 다가왔다. 어린시절 어렵듯이 이해했던 스님의 말씀이 성인이 되자 가슴으로 이해가 됐다.

'소이에게. 늘 조용하게 웃는 웃음이 좋더니만 좋은 성적을 냈더구나.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소이의 아름다움을 내세울 수 있게 되길 바라며...'. 1996. 10. 29 小曲

선생님이 주신 <무소유> '영혼의 母音- 어린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편에는 "가까운 친지들에게 <어린왕자>를 아마 서른 권도 넘게 사주었을 것이다. 너를 읽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내 신뢰감과 친화력을 느끼게 된다. 설사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내 벗이 될 수 있어"부분에 영광권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무소유를 읽

3월 11일 그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메일 확인을 위해 들어가 포털사이트에서 법정 스님이 입적하셨다는 기사를 접했다.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실 줄이야... 스님의 입적소식에 마음 한 칸이 아릿하게 저러왔다.

생전 한 번도 만나 뵈지 못한 법정 스님은 내게 매우 특별한 분이다. 법정 스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다. 학교에 국어선생님이 새로 전근을 오셨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시던 순수한 총각선생님이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그리 멋진 외모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수업에는 항상 열정적이셨다. 특히 학생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와 사랑으로 챙겨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소위 요즘말로 '훈남' 선생님이셨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셨다. 중간고사에서 국어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선생님을 남몰래 짝사랑해온 나는 그어느 때보다 국어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때 선생님이 수고했다며 주셨던 선물이 바로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였다.



사부대중 칼럼

박소이
전 과거사진상규명위 연구원

첫사랑 선생님의 선물 '무소유'

사 설

기도 세례머니 자제돼야 한다

종교(宗敎)를 으뜸의 가르침, 진리, 즉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이다. 그러하여 종교는 평화, 정의 등의 가치를 포함하며, 이 가치들은 현실에서 자비, 배려, 사랑 등의 행위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때론 안타깝게도 종교는 혐오하고 배타하는 기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개신교인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세례머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3월초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 신분으로 다양한 계층과 종교를 무시하는 특정종교의 치우친 언행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도 세례머니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교회언론회가 "개인의 신앙과 표현을 제한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축구협회는 선수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남의 일인 양 뒷짐을 지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공공성(公共性)을 지닌다는 점에서 공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한국사회에서 개신교는 자기우월성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종교표현의 신중함을 요청하는 것은 종교로 인한 갈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다 하는 타당한 행위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공공성 여부를 따져보자.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말한다. 국가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는 만큼 공공적이며, 선수들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

어느 사회이던지 종교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종교는 그 가르침을 내면화

하고 신비화해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그래서 종교는 대체로 자기우월성을 강하게 지닌다. 이것이 종종 자기 종교 밖의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종교인의 배타성은 신비화된 것이기에 같듯이 생겼을 경우에는 종교가 가르치는 가치를 배반할 정도의 격한 상황으로 치달는다. 종교 분쟁은 반종교적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순의 극치를 보여준다.

심자군전쟁을 비롯해 오늘도 벌어지는 극한 종교 분쟁을 살펴보면, 유일신교 교리의 분쟁이라는 점이 발견된다. 기독교가 우상숭배를 금지한 것은 기원전 700년경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 등 강대국의 간섭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종교적·정치적 저항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했다. 주변 국가들의 간섭을 물리치고, 내적으로 단결을 도모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종교가 등장했다. 한 세기 전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피식민국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고취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개신교만은 천년 이전에 유포했던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받들고 있다. 그 이유는 위기의식에 있다. 우상숭배 금지는 문패일 뿐 사실은 물리적 확장이 멈춘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며, 위기의식은 일부 개신교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자기 밖의 존재에 대한 배려 없는 종교는 다문화사회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종교평화위원회의 촉구를 받은 종교행위에 간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가대표는 공인이다. 공인에 걸맞은 행동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데, 축구협회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67 인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실 연필닷컴 실시간 뉴스 롯데뉴스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불교포탈 부디피아 쇼핑몰 연필닷컴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충청지사 : (043)732-5560 부산지사 : (051)632-0064
전북지사 : (063)910-8977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편집: 신문윤리경영 및 고 심상 윤공을 준수한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관절통증·허리통증·어깨·목 통증

신제품 MSM Glucosaid & Omega3 Cream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골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뻥뻥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명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뒤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활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많으나 이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곽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